

작품 내용

제 목	금메달의 약속
내 용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나는 미국 올림픽대표팀의 한국 보안팀장을 맡았다. 미국 선수들이 식사하고 휴식하는 전용 안전지원빌딩(미국팀 전용)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선수와 관계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었다.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봅슬레이,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밝게 인사를 건네던 여자 아이스하키대표팀이 기억에 남는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가 있었다. 캐나다였다. 미국은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 이후 20년 동안 정상에 오르지 못했고, 그사이 캐나다는 올림픽을 네 차례 연속 제패했다. 평창 예선에서도 미국은 캐나다에 1대 2로 패했다. 경기 전날, 선수들은 패하면 말을 걸지 말아 달라고 했다. 경기 후 돌아온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나는 말없이 약속을 지켰다. 당시 나는 두 손에 라켓을 하나씩 들고 경기하는 대한민국의 창작 라켓스포츠 ‘태극민턴’을 개발하고 있었다. 시제품은 늘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선수들이 휴게실에서 별다른 운동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태극민턴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었다. 캐나다와의 결승을 앞둔 어느 날, 몇몇 선수에게 두 개의 라켓을 건넸다. 태권도를 전공하고 40여 년간 수련했으며 대학에서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고 소개하자, 태권도를 잘 알고 있던 몇몇 선수들이 관심을 보였다. 아이스하키와 태극민턴은 양손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끝까지 바라보며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사용하면 눈과 손의 협응력, 순간 판단력과 집중력을 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선수들이 이내 공에 시선을 고정했다. 한쪽 라켓으로 받아낸 공을 반대쪽 라켓으로 연결했고, 방향이 바뀔 때마다 몸의 중심도 빠르게 이동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아이들처럼 진지하고 즐거워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나누었다. 결승전에서 우승하면 금메달을 내 목에도 한 번 걸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농담처럼 한 말이기도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마음에 품었다. 태극민턴 역시 아직 세상에 온전히 증명되지 않은 꿈이었기 때문이다. 결승에서 미국은 캐나다에 1대 2로 뒤지다가 동점을 만들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미국의 슛이 골문을 갈랐고 골키퍼가 캐나다의 마지막 슛을 막았다. 3대 2. 미국이 2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시상식을 마친 선수들은 환호와 눈물 속에서도 나와 약속을 잊지 않았다.

선수들 틈에서 한 선수가 자신의 금메달을 벗어 내 목에 걸어주었다. 또 다른 선수도 자신들 부모님보다도 내게 먼저 걸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에서만 보던 올림픽 금메달이 가슴에 닿자, 내가 그들의 코치라도 된 듯 벅차 올랐다.

그날 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면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 도전과 실패, 기다림과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메달의 색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창작물인 태극민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완성된 라켓과 경기 장면을 먼저 본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제품디자인과 크기, 무게를 수없이 수정하고 다양한 공을 시험하며 운동법과 경기 규칙, 교육 방법을 만들어 온 시간이 있다. 태극민턴이라는 이름에는 대한민국의 태극 정신과 양손의 조화, 신체의 균형을 새로운 스포츠로 만들고자 했던 나의 철학이 담겨 있다.

해외 박람회에서 태극민턴을 소개할 때면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다. 특히 중국 행사에서 사람들이 라켓의 앞뒤를 살펴보고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면 불안해졌다. 내가 돌아간 뒤 비슷한 제품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창작자의 이름이 지워진 채 새로운 스포츠로 포장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새로운 스포츠는 알려져야 성장한다. 그러나 공개하는 순간 모방될 수 있다. 보여주지 않으면 꿈이 멈추고, 보여주면 빼앗길까 두려운 것이 창작자의 현실이다.

그럴 때마다 평창의 금메달을 떠올린다.

미국 선수들은 금메달의 소유권을 내게 준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소중한 성취를 잠시 나누며 나와서 약속을 지켰다. 저작권도 이와 같은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창작물을 가두는 자물쇠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과 시간을 지우지 않겠다는 사회의 약속이다.

양손으로 라켓을 사용한다는 생각이나 경기 방식 전체를 저작권만으로 독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작성한 교재와 규칙의 문장, 사진과 영상, 캐릭터와 콘텐츠에는 창작자의 고유한 표현이 살아 있다. 제품의 기술과 형태, 명칭은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으로 함께 지켜야 한다. 권리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창작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음악, 글을 사용할 때 허락과 출처를 먼저 살피게 되었다. 내 창작의 시간을 인정받고 싶다면 다른 창작자의 시간부터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메달은 잠시 내 목에 머물렀다가 선수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약속은 아직 내 가슴에 남아 있다. 모양과 제품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도 창작자가 견딘 시간과 이름까지 빼앗아서 안 된다.

금메달이 선수의 땀과 도전을 증명하듯, 저작권은 창작자의 실패와 도전의 시간을 증명한다. 누군가의 창작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지켜주는 약속.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금메달이기 때문이다.